



조지훈 시장 “특별한 전주” 조지훈 전주시장이 12일 시청에서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일 성과와 향후 향후 4년간 추진할 주요 시청 4년 청사진 구체화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주시>

조지훈 시장 취임 100일...4대 청사진 제시

조지훈 전주시장 ‘전주대 전환’ 승부수
시민청 신설·재정 건전화 시민주권 행정
디지털AI·글로벌 금융·문화 거점 육성
아이꿈수당·공공산후조리원 돌봄 확대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전주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역동적이고 대체 불가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기사 3면·12면>
조지훈 시장은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멈춰있던 전주의 잠재력을 깨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를 동력으로 남은 4년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AI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도시, 시민 모두의 돌봄을 책임지는 도시,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0일간 다진 기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전주의 4년을 책임질 4대 핵심 시청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조 시장은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청’을 신설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한 차원 강화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직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99만㎡(30만 평) 이상의 첨단 산업 거점에 연구·개발·교육·주거 기능이 집적된 ‘디지털 AI·J밸리’ 조성을 본격화하고, AI 기반 전략산업 펀드 조성 및 국민연금공단(NPS) 중심의 글로벌 금융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AI특별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동시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과 더불어 연령별·계층별 노동자 권익 보호,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 안전한 선순환 푸드시스템 구축 등에도 공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이어 복지 분야에서는 ‘전주 아이꿈 수당’ 도입과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및 위탁으로 양육·출산 부담을 덜고, 청년 주거 지원 및 스마트 안심 돌봄 365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또,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안심 동행 서비스, 반다비 체육센터 및 장애인화관 건립 등을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시민 모두의 돌봄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확산과 전주화약 공원 조성을 통해 전주를 ‘시민혁명도시’로 만들고, 원도심 활력을 위한 ‘충경로 RE:COR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발 더 나아가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성공적 완수 △2027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및 세계문화정상회의(UCLG) 성공 개최 △‘전주 메이드’ 영화 제

작 지원 △백반·가맥·막걸리 미식 산업화 △K-퓨류 야간관광을 결합해 전주를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다.
조 시장은 앞서 민선9기 출범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구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시청사 출입구 개방과 민원인 전용 주차장 2배 이상 확대, 쌍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 간부회의 및 출연기관장 회의 생중계 도입 등을 통해 물리적·제도적 문턱을 낮춰 소통 행정의 기틀을 다진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 시장은 취임 1호 결재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정운용원칙을 재정비하는 등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행보도 본격화했다.
여기에 ‘보완요구 1회 원칙’의 윈스텝 건축 인허가제 도입을 서두르고, 현업 부서 계약 권한을 높이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이뤄졌다.
조 시장은 “100일은 완성이 아니라 시민을 귀하게, 전주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한 시간”이라며 “말보다 확실한 성과로 증명하고 오직 전주만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시민의 자력, 정부와 함께 뛰는 윈팀 동력으로 성장 중심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조직개편...에너지국 신설·AI산업 강화

1국 6과 30팀 확대...민생·도민주권 방점
재생에너지·디지털AI 육성체계 구축

전북도는 12일 민선9기 도정철학을 조직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체감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도민주권 실현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마련, 7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편안은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이라는 도정비전을 실행할 추진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 기업과 지역산업의 성장이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도민 참여와 복지·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처 개편 방향에 맞춰 노동권 보호, 통합돌봄, 자살예방, 구급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분청 조직은 현행 15실국 69과 284팀에서 16실국 75과 314팀으로 1국 6과 30팀이 확대된다. 전체 정원은 2026년 기준인력 배정분 140명과 추가 행정수요 22명을 반영해 5,536명에서 5,698명으로 162명 증가한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2,076명에서 2,160명으로 84명, 소방직이 3,456명에서 3,534명으로 78명 각각 늘어난다.
먼저 기업유치지원실을 체감민생경제실로 재편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 지원을 하나로 잇는다. 소상공인과를 신설해 경영 안정과 판로 확대, 금융 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을 돕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AI금융 인프라와 사회연대경제 기능도 보강해 성장의 성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
기업애로해소과는 기업성장지원과로 개편해 현장 애로 해소부터 경쟁력 제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도약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또 농생명축산산업국은 직제 순서를 상향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식품기업 육성 기능을 보강해 농민과 지역기업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한다. 새만금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양관광산업과를 신설해 해양자원을 산업·관광과 접목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자치행정국을 도민주권국으로 재편해 도민 참여와 현장 소통의 폭을 넓힌다. 직소민원 기능을 확대해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기존 민원팀과 연계한 윈스톱 민원서비스로 반복민원과 광역갈등민원 등 복합적인 고충에 적극 대응한다. 청사 개방과 도민과의 직접 대화에서 수렴한 의견도 민원해결과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총괄지원과와 자치제도과는 특별자치지원과로 통합해 도민주권국으로 옮긴다. 전북특별법 개정과 특례 추진을 위한 입법·제도 지원을 일원화해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지

역 발전과 도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미래첨단산업국을 AI미래첨단산업국으로 재편해 주력산업과 AI의 융합을 촉진한다. 전환산업과는 AI모빌리티과로, 디지털산업과는 디지털AI산업과로 변경해 디지털AI·로봇, 반도체, 국방 등 전략산업의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생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기술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한다.
바이오 관련 기능은 바이오산업과로 일원화해 기업 성장과 산업생태계 확충을 지원한다. 현대차 투자지원단도 인력을 보강해 AI데이터센터·로봇공장, 수전해플랜트, 태양광 발전 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한다.
에너지국을 신설해 에너지 정책과 산업 육성의 추진체계를 한 곳으로 모은다. 청정에너지수소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바뀌 정책 총괄·조정과 전력계통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생산부터 산업 현장의 활용까지 연계한다.
재생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해 태양광·풍력산업 육성과 RE100 대응을 전담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수소산업과도 신설해 그린수소 등 생산기반 구축과 수소기업·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맡아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AI홍보국을 새로 설치하고 소통기획과를 홍보담당관으로 변경, AI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한다. 정책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AI 기반 정보서비스에서도 전북의 정책과 강점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AI시티’ 조성 방향도 공유한다.
여성가족과를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가족담당관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높인다. 노동감독과를 신설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응하고, 통합돌봄팀의 정식 조직 전환과 자살예방팀을 신설한다.
소방본부에는 119구급과와 소방교육훈련센터를 통해 구급 대응과 현장 교육·훈련 역량을 끌어올린다. 총무과는 행정부지사 직속 운영지원관으로 개편하고 교육감사팀은 정식 조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도 신설해 핵심기관 유지와 이전 준비, 이전 기관·직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제출된다. 이어 제43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9기 도정 비전을 행정 조직으로 구체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 행정을 뿌리내리고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AI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장정철 기자

진안으로 GO! 음식으로 ONE!

진안고원푸드페스타

2026. 10. 24. 토 - 10. 25. 일

진안공설운동장 일원

10. 24. 토 세프라이브배틀

10. 25. 일 고원 미식회

10. 25. 일 고원 한입 쿠킹쇼

놀GO! 먹GO!

정호영셰프 VS 박은영셰프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셰프

140만 인기 유튜버 최요남

전국 대학생 요리경연대회

GO ONE 샌드위치 랩

시장 미션 빙고

색(色) 찾아 시장 한바퀴

주최 진안군

주관 진안군관광협의회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35%대로 동반 급락

리얼미터 조사 국힘 41.3% 선두
민주당 7.0%p 급락 국힘 2.9%p 상승
민주당, 전북·광주·전남 5.7%p 하락
리얼미터 “인사·안보·부동산 영향”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5%대로 동반 급락했다.

김지음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간의 충돌하는 사태로 인한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반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높아진 61.4%로 다시 60%대에 진입했다. 특히 ‘매우 잘못함’이란 평가가 50.5%로 50%를 넘어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이는 3.4%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7%포인트(42.4%→33.7%), 부산·울산·경남에서 4.7%포인트(35.1%→30.4%) 급락했고,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7.6%포인트(39.3%→31.7%), 이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 5.1%포인트(42.4%→37.3%)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이번 성향로는 보수층에서 3.9%포인트(14.1%→10.2%), 중도층 3.5%포인트(42.7%→39.2%), 진보층 1.4%포인트(54.4%→53.0%)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

부동산 약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41.3%(2.9%p↑), 더불어민주당 35.5%(7.0%p↓), 조국혁신당 6.3%(1.1%p↑), 개혁신당 2.8%(1.3%p↑), 진보당 1.2%(0.1%p↓), 기타 정당 1.8%(0.2%p↑), 무당층 11.0%(1.5%p↑)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당 폭 하락함.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8%p로 소폭 확대됐으나, 8주 연속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2주 연속 상승하며 6%대로 진입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외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4.0%포인트, 인천·경기에서 10.0%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 6.8%포인트, 전남광주·전북에서 5.7%포인트 지지율이 급락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1.8%포인트, 인천·경기에서 5.9%포인트 각각 지지율이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道, 시·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릴레이 홍보

12~29일 도청 로비서 진행
12개 시·군 특산품 전시·시식

전북도가 도내 12개 시·군과 함께 지역별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보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도는 12일부터 29일까지 도청 1층 로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홍보관 앞에서 ‘시·군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현장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청 방문객과 직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 답례품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시·군은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전시하고 시식·시음 행사와 함께 기부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간 중 총 8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12

일 김제·무주를 시작으로 14일 완주, 21일 임실, 23일 남원·부안, 26일 장수, 27일 진안·고창, 28일 정읍·순창, 29일 전주 등 12개 시·군이 차례로 참여한다.

도는 연말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시·군별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집중 홍보해 지역 간 상호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와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민희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연대를 실천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가 각 지역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알리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5일간 화랑훈련 돌입...통합방위태세 강화

12~16일 도내 전역서 5일간 실시
도·14개 시·군·군경소방 등 참여
대량살상무기 공격 가정 대응훈련
통합방위 읍중사태 선포 안전 점검

전북도는 12일 도청 충무시실에서 제4차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화랑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인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주정민 전주교도소장, 김상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 위원 2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군·경 작전상황을 공유하고, 훈련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읍중사태’ 선포 안전을 심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와 협력사항을 점검했다. 훈련에는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제35보병사단, 전북경찰청, 전북소방본부, 국가중요시설 등 지역 내 주요 통합방위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설정하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상황조치 능력과 공동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점검하고,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위험 양상도 복잡해지면서 지역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실제 위기상황에서 우리 지역 통합방위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12일 전북도청 충무시실에서 열린 2026년 화랑훈련 연계 제4차 통합방위회의에 이원택 지사가 훈련상황에 따른 대응체계와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강조했다.

한편, 2026년 화랑훈련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화랑훈련은 후방지역

의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평시 연계된 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훈련이다.

/장정철 기자

김윤덕 “문화기술기획평가원 졸속 운영”

R&D 258건 중 218건 수요처 없어
ETRI·KETI 463억 매정...실적 18%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R&D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실제 기술을 활용할 수요처를 찾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

R&D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수요처 없는 맹탕 연구과제 선정과 특정 연

구기관의 기술개발 예산 삭감이 등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부실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2021년 ‘1부처 1 R&D 원칙’에 따라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舊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을 개소해 R&D 기획·평가 및 기술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된 연구개발 과제 258건 중 무려

84.5%에 달하는 218건이 ‘수요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연구과제 예산 2,412억 중 82%인 1,979억 원이 수요처 없이 ‘공급자 주도형’으로 설계되어 한마디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은 108개 과제에 995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현장으로 이어진 기술이전 성과는 단 40건, 10억 2,482만 원(약

1%)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정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독식 구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두 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참여해 최근 2년간 93건, 약 463억 원의 예산을 가져갔다.

김 의원은 “통신·가전제품을 개발하던 연구기관들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문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예산을 싸늘이라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R&D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처 매칭을 과제 선정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문화기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제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30 Km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자 수칙

스쿨존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기

안전거리 준수하기

스쿨존에 주.정차 하지않기

100일의 동력으로 그리는 전주의 4년

재정 건전화 추진 시민 주권 소통 행정 강화

민선9기 조지훈 전주시장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존중받는 도시, 14개 시군을 연계하는 플랫폼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깝게는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대폭 넓혀 시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AI(인공지능)산업과 영화·영상·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공을 들이는 이유기도 하다. 이를 통해 전주를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선9기 첫 100일, 기본을 바꿨다! 전주시는 민선9기 첫 100일을 이룬 변화들을 준비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시민 존중과 시민주권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행정의 기본 태도를 바꾸고, 재정 혁신과 조직 문화 개선으로 행정의 기준과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실제로 조지훈 전주시장은 취임 직후 시청사 게이트를 상시 개방토록 해 시민 누구나 시청사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시장실 옆 시민소통공간에 이어 시청사 별관에는 열린 시민 소통·휴식 공간인 '마주뜰'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려가고 있다.

행정의 태도를 바꾼 사례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간부회의·출연기관장 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시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간부회의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출연기관장 회



의를 생중계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논의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의 태도와 함께 행정의 기준도 바뀌었다. 조 시장은 취임 후 '재정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민선9기 첫 결재하며 기준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시는 일하는 방식도 혁신했다. 대표적으로 민원인의 방문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완요구 1회 원칙'의 원스텝 건축인가제도를 도입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업 부서

의 수의계약 권한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으로 높였다. 각종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제도 역시 가동 중이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 속에 전주소 달라지고 있다. 쌍방향 소통 공간이 정착하면서 플랫폼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4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돼 175건의 답변이 완료됐다. 또 생활민원 처리 번호 '빨리처리(8272)'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전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만성적인 주차 불편을 겪었던 시청사 주차장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외에도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풍남문광장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HDMS와 동미전기공업(주), ㈜아이에이클라우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AI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도 다졌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전주 시는 이러한 100일간의 변화를 기반으로 남은 4년을 시민존중도시, AI특별도시, 시민돌봄책임도시, 아시아 5대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존중과 시민주권 회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전주를 꼭 만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시민사회, 자생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청'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민주권 타운을 미팅도 추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소통 행정과 더불어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건전화 정책들도 지속 추진된다. 세원 확충 및 교부세 증대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 확장을 위한 인접 지자체와의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재정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정 운용(집행) 원칙도 재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고향사랑기금, 체납 징수 등을 통해 세입을 늘려나가고, 필수경비를 절감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살림살이를 운영해 나갈 기틀을 다지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시민들이 주인임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펼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100원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무결점 안심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포트홀 예측 및 긴급대응반도 운영한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모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재난까지 보장하는 전주소 기후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주소 바뀌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알기에 지난 100일간 전주소 2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오직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전력질주했다"며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조처럼, 우리 전주소 역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시민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한옥마을 인형극 축제 '성황'

다양한 형식의 인형극 등 특별한 추억 선사

개성 넘치는 인형들과 다채로운 공연이 전주한옥마을을 거리와 오목대전통정원을 가득 채우며 전주소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제6회 전주거리인형극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축제 기간 다양한 인형극과 포포댄스가 진행됐다. 인형극체험관에서는 해외 인형극 작품이 공연돼 국내 관객들에게 색다른 인형극의 매력을 선보였으며, 한옥마을 태조로 일원에서는 대형 인형을 활용한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공연이 펼쳐지는 거리 곳곳에 모여 인형들의 움직임과 이야기에 함께 웃고 호응하는 등 축제 현장을 함께 즐겼다.

/김은지 기자

2026년 전주소 수소산업 심포지엄 개최

현대차 새만금 투자 및 5급 3특 시대에 맞춘 전주소 수소산업 방향성 모색

국내 수소 분야 전문가들이 전주소에 모여 대한민국과 전주소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소는 12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2026년 전주소 수소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5급 3특' 전략에서 전북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그린수소 플랫폼이 확충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주소 수소산업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김진후 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장이

'현대자동차 새만금 9조 원 투자와 전북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어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와 5급 3특 시대, 전주소 수소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명환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동력연구본부장은 '친환경 이동수단 수소 모빌리티의 확장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의 기술 동향과 확장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최백렬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담당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연구소장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이근재 현대자동차 RH 사업기획담당 분과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주소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소,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 강화

주민센터에 나눔매니저 위촉 일상 속 봉사 참여 기반 강화

사단법인 전주소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洞) 자원봉사 디렉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소자원봉사센터는 12일 자원봉사 거점으로 운영될 동서학동과 덕진동, 삼천1동, 팔복동, 효자3동 등 5개 주민센터에 배치될 나눔매니저 위촉식을 가졌다.

동(洞) 자원봉사 디렉터제는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자원봉사 거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주소자원봉사센터는 12일 자원봉사 거점으로 운영될 동서학동과 덕진동, 삼천1동, 팔복동, 효자3동 등 5개 주민센터에 배치될 나눔매니저 위촉식을 가졌다

각 거점에 배치되는 '나눔매니저'는 자원봉사 상담 및 실적 관리 등을 지원하며, 주민과 행정, 자원봉사센터를 잇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센터는 올해 5개 거점 중 1곳을 대상으로 주민 수요와 동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지원하는 등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이천 전주소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과 주민을 잇는 자원봉사 거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제2회 전주소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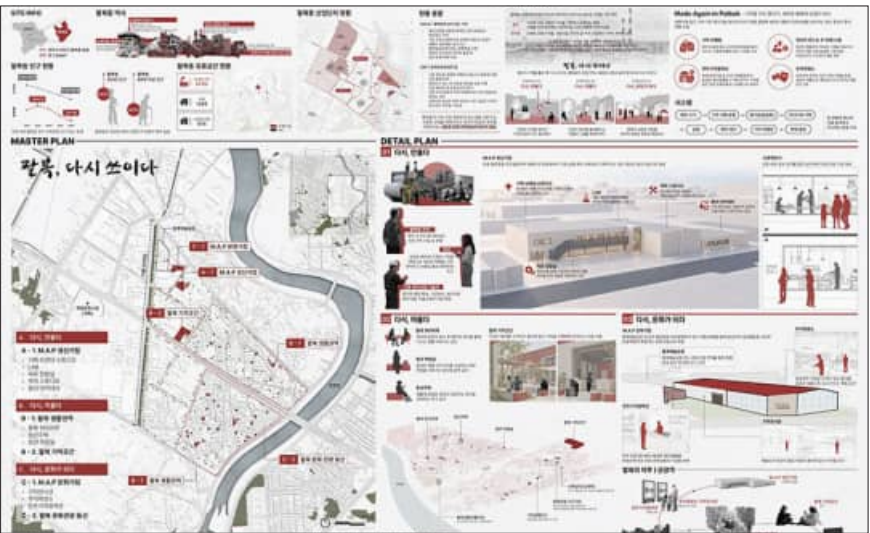
팔복동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전국 47개 대학 204명 참여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각자 전공 분야를 살린 아이디어로 전주소 팔복동 도시재생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주소와 전주소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2회 전주소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대상 1팀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입선 10팀 등 총 15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소 덕진구 팔복동 일대를 대상으로 '연결에서 공존으로 공간을 재편하다: SOLID · GAP · BUFFER'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팔복동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과 공간을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7개 대학에서 도시공학·건축·조경 등을 전공하는 학생



204명이 참여했으며, 팔복동의 지역 현안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해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총 51개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심사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수상작은 △대상 '팔복, 다시 쓰이

다'(서울대학교) △최우수상 'RE:FLOW PALBOK 물길로 다시 잇는 팔복'(세종대학교) △우수상 '팔복동 물들다'(경성대학교) △장려상 '다음을 짓다'(군산대학교) △장려상 '팔복동 사이사이'(가천대학교) 등이며, 이외에 입선작 10개 작품도 함께 선정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소립극단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마련

전주소립극단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덕진예술회관에서 제136회 정기공연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을 선보인다. 공연은 3일 동안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에 각각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세르비아를 대표하는 극작가인 류보미르 시모비치(Ljubomir Simović)의 희곡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으로, 안상철 가톨릭예술단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전쟁과 공포가 일상이 된 마을 사람들은 연극을 하겠다는 유랑극단을 병담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던 중 독일군 사령관과 그의 정

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을을 청년 세쿨라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붙잡혀 간다. 사령관의 죽음에 따른 애도 기간을 이유로 유랑극단의 공연마저 금지되면서 극단과 마을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된다.

전주소립극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 연극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그려낸다.

특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예술의 존재 의미와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공연 입장권은 R석 2만 원, S석 1만 5000원으로, 나루컬처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농협사료, 국산 원료 ‘뒷전’ 수입에만 의존

옥수수·밀 100% 수입 국산 농작물 원료 사용 비중 0.6% 불과

농협사료가 배합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밀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내산 농작물과 가공 부산물의 사용 비중은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 연구를 통해 국산 조사료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관련 가공·보관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업협동조합 계열사의 국내 농업 생산기반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이 농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사료의 옥수수와 소맥(밀) 수입 의존도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0%를 기록했다.

단백질 공급원인 대두박 역시 수입 비중이 90% 안팎에 달했다.

반면 국내산 농작물과 가공 부산물의 매입 비중은 2021년 0.4%, 2023년 0.5%, 2024년 1.7%, 2025년 1.4%에 그쳤으며 올해 8월 누계 기준으로는 0.6%(1만 2,756톤)에 불과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사료용 현미 매입도 2024년 3만9,288톤, 2025년 2만 4,900톤에 머물렀고 올해 8월까지의 매입 실적도 없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농협사료가 자체 연구를 통해 국산 조사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농협사료의 2023년 연구 결과 국산 호밀의 하루 평균 증체량은 861g으로 수입 연맥(676g)보다 높았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청보리 역시 양호한 조사료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농협사료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산 사료작물 전용 가공·건조·보관시설 신·증설에 투자한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현지법인과 해외 공급망을 통한 조사료 매입 규모는 올해 계획분을 포함해 약 40만 톤, 1억 2,300만 달러에 달했다.

국산 원료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미미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농협사료의 전체 연구개발비 40억2,060만원 가운데 국내산 대체원료 관련 연구비는 1억

1,000만원으로 2.74%에 불과했다.

이처럼 농협사료가 해외 원료 확보에는 적극적인 반면 국내산 사료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농업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쌀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농협사료의 국산 원료 구매 확대와 계약재배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농협은 말로만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사료용 벼와 국내산 사료작물 계약재배 확대, 가공·저장시설 투자, 국산 원료 배합 확대 등 사료 자급 기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불법선거 예방 강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전북농협이 2027년 3월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고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내부 지도·감독 강화에 나섰다.

농협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8일 도내 농축협 감사업무 책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거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행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선거지원팀 이한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위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위반 사례, 예방대책, 공명선거 홍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

전북농협은 특히 ‘NO 금품, NO 비방, NO 허위, NO 부정’을 공명선거 실천 구호로 내걸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각 농축협 감사업무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규정 준수와 예방 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4NO 공명선거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농협을 만들겠다”며 “감사업무 책임자들이 선거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 중심의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신협중앙회>

신협, 전주한지문화축제 후원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가 제30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후원하며 전통한지 계승과 지역 한지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전주한지문화축제에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 한지(Now, HANJI)”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한지 제조 및 초지장 시연, 한지공예·서에 체험, 전주한지 운동회 등이 진행됐다.

한지 유등 전시와 비즈니스존, 판매존도 운영됐다.

신협은 2018년부터 전주시와 협력해 전주한지협동조합 설립, 한지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 후계자 육성 등에 지원해 왔다.

또 4대 궁궐과 고택의 창호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익산 왕궁 축사 매입지에 막나무를 식재해 한지 원료 국산화와 지역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전주한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전통한지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지역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데레사요양원에 400만원 전달

어르신들을 위한 치유와 휴식 공간 조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데레사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의 2026년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금은 데레사요양원의 ‘엄마의 정원, 치유를 심다’ 사업에 사용되며, 요양원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화훼류를 식재하고 정원을 정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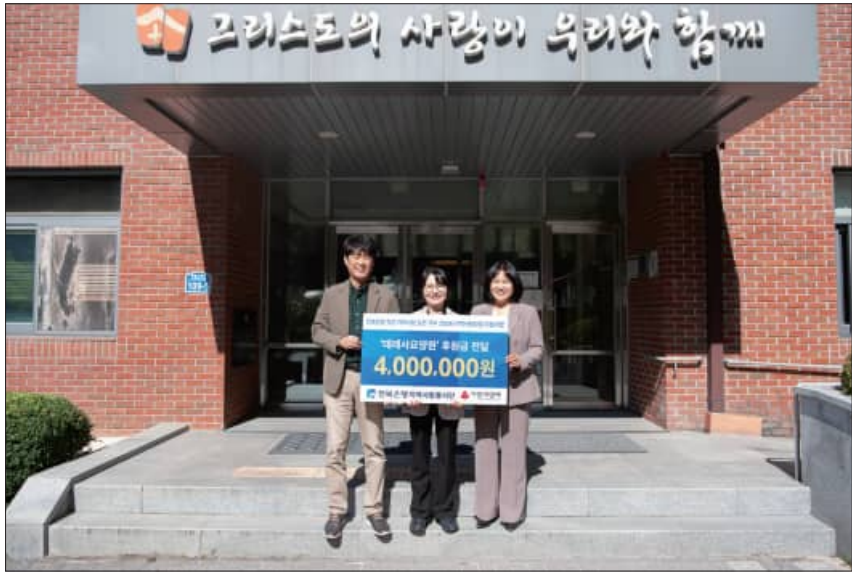
인다.

특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과 식물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한편, 입소 어르신과 가족, 지역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전달식에는 데레사요양원 조정복 원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고현상 경원동지점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조정복 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원을 의미 있게 가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작은 즐거움과 마음의 위안을 전하고, 꽃과 자연을 가까이하며



<사진=전북은행>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LX, 지적측량신청포털 개편 6개월… 이용자 ↑

절차 간소화로 비대면 접수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지적측량신청포털을 개편한 뒤 국민 누구나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접수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개편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신청포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청 과정을 다시 설계했다.

개편 전에는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연간 약 20만 건의 지적측량 신청 가운데 70~80%가 시·군·구청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접수했다.

반면, ‘지적측량신청포털’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신청 절차를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였다.

또한 측량할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고 측량 목적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이와 더불어 전문용어는 쉬운 설명으로 바꾸고, 화면도 이용자 중심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국민은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측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개편 후 지적측량신청포털을 이용한 지적측량 신청은 전년 대비 39.2% 높아졌으며, 이용자 의견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포털 기능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고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서비스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오지 거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 광주서 ‘도농상생형 직거래장터’ 운영

도농연계형 일자리 창출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도농상생형 직거래장터’를 2차례에 걸쳐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의 사업비 지원을 바탕으로 고창군로컬JOB센터가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기반을 활용해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 남구 효덕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용표)와 함께 첫 번째 장터를 열었다.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자매결연 지역 간의 우호 교류와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광주 동구 학운동 주민자치회(회장 김대영)와 함께 두 번째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운동 직거래장터는 매년 지속해 온 뜻깊은 행사로, 올해도 고창군은 신선하

고 품질 좋은 고창의 농특산물을 마련해 광주 동구 주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양치영 고창군로컬JOB센터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고창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도심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자리가 된 만큼, 도농 간 활발한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24일 학운동 장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로컬JOB센터는 고용노동부와 고창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맞춤 지원, 농촌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펼치는 종합 일자리 전문 기관이다.



<사진=고창군>

고창군은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삼성계열 자산운용사 3곳, 전주사무소 개소

금융중심지 조성 탄력

삼성계열 자산운용사 3곳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2일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월방빌딩에서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의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삼성계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전주시장,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계열 자산운용사들이 입주한 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 5분 거리다. 이들 운용사는 그동안 국민연금과 국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개소로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마련한 국내의 금융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었다.

특히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거점을 확보하면서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투자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전북혁신도시는 세계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관련 금융기관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삼성계열 운용사들의 전주 진출이 금융기관 추가 유치와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감배 유소년 브리지대회 열려

국내 첫 교육감배 타이틀...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유소년 브리지대회와 제3회 한국브리지협회 장배 브리지대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국내에서 교육감배 타이틀을 걸고 유소년 브리지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두뇌 스포츠인 브리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전북교육청은 브리지의 교육적 가치

를 학교체육과 접목해 방과후 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열린 개회식에는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장, 문병량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성인 참가자들의 올림픽 유치 기원 피켓 응원과 유소년 선수들의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브리지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스포츠”라며 “전북의 스포츠 저변을 넓히고 유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브리지는 지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마인드스포츠”라며 “전북에서 첫발을 댄



이번 대회가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무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장도 “전북 대회를 발판 삼아 전국 학교 현장에 브리지가

<사진=전북교육청>

확산하고 우수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차기 총장 선거 절차 착수

직원·학생 반영 비율 조정 관련 ‘깜깜이 우려’

전북대학교가 학내 구성원 간 투표 반영 비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연됐던 차기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12일 오후 4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 논의를 진행했다.

학내 규정상 총추위는 현 총장 임기 만료(내년 2월 16일) 180일 전인 지난

8월 16일까지 구성을 마쳐야 했으나, 약 두 달 늦게 첫 회의를 열었다.

선거 절차가 늦어진 원인은 구성원 간 투표 반영 비율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직원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지난 19대 선거 당시의 ‘교수 70%, 직원 20%, 학생 10%’ 대신 교수의 비중을 낮추고 직원과 학생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평의원회 개최 역시 파행을 빚었다.

총추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후보 등록일과 선거일 결정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일정이 촉박해질 경우 후보자 자질 검증 기간이 줄어들어 혼탁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투표 비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선거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후보자 자질 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차기 총장 후보로는 김정문(농생

대), 백승우(농생대),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윤영상(공대), 이호(의대), 조재영(농생대), 허강무(사회대) 교수(가나다순) 등 7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송양호 교수와 조재영 교수는 지난 19대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투표 비율 힘겨루기 속에 총추위가 구성원 간 이견을 조율하고 후보 검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완주 삼례서 즐기는 가을 피크닉”

브런치페스타 24일 개최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4일 삼례책마을과 예술인마을 일원에서 ‘2026 스테이삼례 브런치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할로윈 피크닉 파티를 부제로 브런치와 할로윈을 결합한 가족 체류형 행사다.

가족 친화형 문화·체험 콘텐츠와 지역업체를 연계해 삼례 방문과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사전 모집과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브런치·디저트·커피 플리마켓 △마술쇼·버블쇼·풍선아트쇼·버스킹 등 가족 공연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시설 △가족 참여형 공예·브런치 체험 △완주미디어센터와 연계한 가족 영화 상영 △가족 피크닉 공간 조성 등이다.

행사장 곳곳에는 할로윈 테마 공간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삼례 예술인마을이 이번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된다.

넓은 잔디마당을 가족 피크닉 공간으로 꾸미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새로운 공간을 자연스럽게 둘러보고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례책마을에서는 지역업체 플리마켓과 공예체험을, 예술인마을 잔디마당에서는 가족 피크닉과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인마을 체험관에서는 가족 영화를 상영하고, 청춘공작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브런치 만들기 체험을 총 3회 진행한다.

재단은 책마을과 예술인마을, 청춘공작소 등 삼례의 문화공간을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방문객들이 삼례에서 먹고, 즐기고,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유희태 이사장은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예술인마을을 비롯한 삼례의 다양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가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브런치와 공연, 체험, 놀이가 어우러지는 스테이삼례 브런치페스타에서 특별한 가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사진으로 읽는 영화’ 기획전

사진예술과 독립영화 연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우수기획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에이피나인은 오는 16일까지 전주 서학동 에이피나인에서 기획전시 ‘사진으로 읽는 영화: 고사동에서 할리우드까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영화 산업을 기반으로 창작된 사진예술과 독립영화를 연결해 영화를 단순히 ‘보는’ 이미지에서 ‘읽는’ 이미지로 확장하고 사진과 영화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전북 출신 김미림 감독의 독립영화 ‘청춘사진’ 스틸사진과 이재용·이관용의 총무로 상업영화 포스터, 사진가 제롬 드 펠링화가 촬영한 할리우드 배우의 ‘AP-9’ 매거진 표지사진 등을 통해 고사동에서 총무로와 할리우드로 이어지는 영화 산업의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에서 제작된 독립영화의 스틸사진에서 출발해 국내 상업영화의 포스터와 세계적인 영화배우의 포트레이트까지 범위를 넓히며 지역과 국가, 세계로 확장되는 영화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 구조를 보여준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가 영화도시 전주의 문화적 자산을 사진예술과 연결해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연결하는 기획전시를 지원해 도민의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본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에이피나인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피나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익산 장애인사이클팀, 창단 첫해 금빛 질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총 11개 메달 획득

익산시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활약한 장애인사이클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힘찬 도약을 응원했다.

익산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시장애인사이클팀과 원광대학교병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9월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수단은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비

롯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최정호 익산시장과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선수들의 임상을 축하하고, 훈련 과정과 대회 출전 경험 등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창단한 익산시장애인사이클팀은 2024 파리패럴림픽 감독을 역임한 이영주 지도자와 국가대표 박준영·석호진 선수를 비롯해 최광수·유가는 선수로 구성돼 있다.

선수들은 창단 첫해부터 전국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값진 성과로 익산의 이름을 빛냈던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사진=익산시>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우리의 안전 함께 지켜요

안전운전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안전하게 운전해요

산불예방



불씨는 남기지 않고 안전하게

물로 꺼주세요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 해 주세요

군산시, 은파 수질 근본 개선·생태공간 전환

군산시는 12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일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간부회의를 열고 호수 수질과 수초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은파호수는 올여름 폭염으로 수초와 실조류가 급격히 번진 뒤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량 고사해 인라인스케이트장·자전거센터 일대에서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은파호수는 법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로, 수질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다. 저수지 수질은 4등급 이상일 경우 농업용수 기준으로는 적합하지만, 시민이 매일 산책하고 쉬는 공간으로서는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김 시장은 이 점을 지적하며 “은파는 농업용수를 대는 저수지이기 전에 시민의 일상 휴식처이고 군산의 관광자원”이라며 “농업용수로 쓸 수 있으면 괜찮다는 기준을 은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초 제거 같은 대증 요법을 넘어 수질 자체를 끌어올릴 근원적 해결책을 농업·관광과 함께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제준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문제이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은파가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고창군, 자연·문화 행사 ‘풍성’ 2(題)

‘운곡습지 걷기 대회’ 개최

고창군이 오는 31일 고창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북적 북적! 담비랑 반디랑 운곡 습지 걷기 대회’를 연다.

이번 걷기대회는 고창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자원인 세계지질공원 운곡탐사르 습지 와 병바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며 생태환경의 가치를 느끼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10월 준공 예정인 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수변 데크를 직접 걸 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가 될 전망이다. 운곡습지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새롭게 조성된 탐방로를 걸을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생태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는 고인돌공원에서 출발해 운곡



<사진=고창군>

습지까지 이어지는 편도 8km 생태길을 걷는다.

주요 코스는 고창 고인돌 유적지를 시작으로 운곡습지 뚝배기 복원지, 운곡습지 자연생태공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수변 데크 구간을 거쳐 운곡습지 친청경주차장까지 이어진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선착순 300명을 23일까지 QR코드 또는 위크온 앱에서 신청받는다. 생태배상(점심)과 농산물 쿠폰, 완보 배지가 기본 제공된다. 위크온 1·2차 챌린지에 모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도 제공한다.

“어린이 판소리 명창 찾는다”

전북 고창군이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9회 전국 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 참가자를 오는 11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대회는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 바탕 사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협회가 주관한다.

대회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11월8일 예선을 거쳐 이튿날(9일) 축하 공연과 병행해 예선을 통과한 7명의 어린이가 본선 경연을 한다.

왕중왕전은 KBS전주방송총국이 전국에 방영해 어린 꿈나무들의 판소리



<사진=고창군>

기량을 널리 알리며, 미래의 판소리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가치의 의미를 둔다.

대회 참가는 2024~2025년 국악대회에서 입상한 전국의 어린이로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고, 관련 및 자세한 사항은 사)동리문화사업회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보건소-예수병원, 보건·의료 협력

시민 건강 안전망 강화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 8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소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예수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김제시 보건소 및 통합돌봄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사업을 연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제시보건소, 통합돌봄TF팀, 예수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예수병원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보건사업을 연계해, 암·골절 등 치료 후 퇴원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내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 내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대한한돈협회 부안군지부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사)대한한돈협회 부안군지부(지부장 박용석)가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부안군지부가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의 교육 발전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안군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박용석 지부장은 “부안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역사회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의 따뜻한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이웃사랑전기연구회

봉남면 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웃사랑 전기연구회(회장 강동귀)가 지난 10일 저소득 취약계층 12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및 수리·교체 등 재난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기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이웃사랑전기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불량한 전기시설 및 부품을 수리·교체하는 등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전문적인 전기기술을 가진 회원들이 재능을 활용해 직접 점검과 수리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전기시설을 제때 정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강동귀 이웃사랑전기연구회장은 “우리 회원들의 작은 재능이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재난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봉남면장 직무대리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웃사랑전기연구회는 내년 10월까지 봉남면 취약계층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과 시설 수리·교체 등 전문적인 재난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서점마을, 책과 문화로

만나는 도농상생 축제 개최

고창서점마을이 개촌 1주년을 맞아 책과 문화를 매개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축제를 열었다.

고창 서점마을은 지난 10~11일까지 마을 일원에서 ‘우리가 함께 만든 한 페이지’를 주제로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지원하는 ‘2026년 생생마을플러스 사업-마을축제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마을주민과 고창군민, 전국 방문객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고창서점마을이 주최·주관하고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가 협력했다.

행사 첫날에는 서점별 작가 강연과 골든벨, 손수건 만들기, 실스크린 체험, 사진·작가 전시 등이 진행됐으며, 저녁에는 함께 하는 식사와 1주년 기념식예에 이어 고창하늘땅 지역아동센터 밴드부 ‘우당탕’ 공연, 친구들 체육대회, ‘꿈나라 이야기’ 등이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아침식사를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창서점마을을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주민과 서점 운영자,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 온 이야기를 축제를 통해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책과 문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차 추경 1조2,477억원 편성

생활 편의 증진 및 복지 지원 강화 중점

김제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민 생활 안정,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김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이후 새롭게 확정되거나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신속하게 반영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사업을 지역 현안과 연계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1조 2,402억원보다 74억원(0.60%) 늘어난 1조 2,477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는 1조 1,486억원에서

74억원(0.65%) 증가한 1조 1,560억원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추경 전 사용 승인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예산 가운데 재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높였다.

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47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2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1억원 등을 반영해 생활 편의 증진과 복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김제시 노후 고용·복지 복합시설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산림·축산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25억원 △가축매몰지 발굴 소벌사업 6억원 등을 반영해 산림병해충 방제와 가축전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2회 추경은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추가·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 확정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복지급여 오전 9시까지 지급

오후 지급 불확실성 해소 자금 운용 편의 극대화

부안군은 복지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행정 서비스 체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일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당일 오전 9시까지 지급하는 ‘복지급여 오전 9시 온(ON)’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지급 당일 금융기

관의 전산 처리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입금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른 오전 급여 인출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 부서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전산 처리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포함한 총 23개 복지급여에 대해 지급 당일 오전 9시까지 입금되도록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장회의 및 읍·오폐라인 채널을 활용해 변경된 지급 시스

템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는 대상자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시각을 몇 시간 앞당기는 작은 절차의 개선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매우 큰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행정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의회, 10월 의원간담회 개최

주요 현안 및 조례안 등 총 15건 안건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지난 12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10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며 하반기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과 2027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협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원 발의 안건이 제출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

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김진수 의원)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완 의원)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자 의원)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시민 복리 증진과 직결된 만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발굴 용역 추진 풀용역비 사용계획(안)(기획감사실) △국공립 베이비케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수도사업소)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차매재활과) △2027년 스마트 수출전단단지 구축사업 공모 추진계획안(스마트유통과)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9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정자 의장은 “이번 의원간담회는 다가오는 제301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직결된 주요 정책을 사전에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의회는 집행부와와의 긴밀한 소통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올바른 시정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창작극 ‘바람, 문을 열다!’ 31일 부안 공연

부안군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단체인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대표 이도현)’이 창작 초연작 ‘바람, 문을 열다!’ 공연을 오는 31일 오후 2시와 5시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람, 문을 열다!’는 1919년 4월 4일 옛 술리(현 익산) 정터에서 일어난 4·4만세운동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무대 위에 겹쳐 놓은 극중극 형식의 작품이다.

연출가와 희곡작가 겸 조연출, 배우는 각자의 상처와 고민을 안고 공연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1919년 익산 4·4만세운동을 이끈 문용기 열사와 박영문, 애신이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특히 문용기 열사는 함경도 광산에서 조선인 광부와 일본인 광산주 사이의 통역관으로 일하다 동료들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만세운동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다.

일본 헌병의 총칼에 두 팔을 잃으면 서도 끝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청년들의 용기와 희생을 되새긴다. 이번 공연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의 이야기에 현재의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고민을 더해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화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 예매일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이다.

현장 및 인터넷 동시 선착순 판매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광한루 국보 지정 기념식 개최

지난 7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10일 국보 지정서 공식 전달식
시립국악단 공연 등 축제의 장

남원시는 지난 10일 조선시대 대표 누각 남원 광한루의 국보 지정을 축하하는 공식 기념식을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광한루가 기존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된 역사적 순간을 남원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광한루가 가진 건축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가 남원에 유배돼 세운 ‘광통루’에서 시작해 400여 년의 세월 동안 호남제일루로 자리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숨결을 함께해 왔다.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목조 건축의 정수이자, 춘향전은 물론, 수많은 문인들의 감성을 자극한 남원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남원농악



<사진=남원시>

터울림을 시작으로 △국보지정 경과보고 △국보 지정서 전달식 △기념사 및 축하 △남원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광한루원의 야경과 어우러져 참석자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보로 지정한 남원 광한루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남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남원 광한루 국보 지정은 남원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남원의 빛나는 문화적 위상을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일에 노력하는 한편, 남원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순창군>

순창 경천 산책로·두물머리공원, 가을꽃 물결

순창 경천 산책로와 두물머리공원이 형형색색의 가을꽃으로 물들며 가을 나들이 명소로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천 산책로와 순창읍 남계리 두물머리공원 일대에 코스모스와 백일홍, 해바라기, 벚들마편초 등이 잇따라 만개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두물머리공원에서는 넓게 펼쳐진 보랏빛 벚들마편초와 노란 해바라기가 어우러져 화사한 가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경천 산책로의 풍경도 한층 풍성해졌다. 산책로를 따라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와 붉고 화사한 백

일홍이 이어지면서 걷는 곳마다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경천의 수변 풍경과 꽃길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경천 산책로와 두물머리공원은 순창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별도의 입장료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산책하며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군은 가을꽃이 절정을 맞은 만큼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편의시설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어르신 일자리 발굴 나서

완주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육시설·주차장 등 업무 발굴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은 12일 지역사회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완주시니어클럽(판장 김대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공단 관리시설 내 시니어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니어 적합 일자리 발굴 및 배치 △직무·안전 교육 지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현장관리 및 참여자 고충사항 공유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단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각 시설의 업무 특성과 운영 여건을 검토해 시니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완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참여자 모집·선발 및 시설별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수 이사장은 “공공시설은 주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그 공간에서 만 들어지는 일자리 역시 지역과 함께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바이오연구원, 투자연계 IR 상담회 개최

7개 회사전문 투자자 7명 참여
기업별 IR 발표·기술사업성 점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오는 14일 컨설팅리조트 대원회관에서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 대원회장에서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연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연계 프로그램 기업 유치 IR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양충모 남원시장을 비롯해 이영철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그

리고 업선된 7개 참여기업과 7명의 전문 투자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상담회는 실효성을 높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스타벤처스 임성준 대표의 최신 투자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 특강 △남원시 기업유치 사업설명 △참여 기업 7개사의 IR 피칭 및 전문 투자자 질의응답 △기업별 기술·시장·사업·성장성 및 투자매력도에 대한 일체적 피드백 △후속 투자 검토 및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유치 연계 등이 다뤄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인형극페스타, 공연·체험·퍼레이드 ‘한자리’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2026 완주인형극페스타’를 개최한다.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어른에게는 동심과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는 축제로, 인형극 공연을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 퍼레이드까지 한자리에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예술축제로 꾸며진다.

극장과 야외광장에서는 다채로운 인형극이 펼쳐진다. 극장에서는 ‘아득시니’, ‘이야기 숲! 이야기기!’, ‘꼬마장승 가족기’가 관객을 만나고, 야외에서는 ‘뽕따기 도둑과 여우탐정’, ‘머리 없는 가족’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인형의 탄생과 움직임의 살펴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에서는 나무와 천,

종이, 실 등 다양한 재료가 인형으로 탄생하는 과정부터 구조와 조종 원리, 여러 형태의 인형과 제작 과정, 실제 무대에서 활용되는 모습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관람은 연계 체험 프로그램인 ‘꿈틀공방’으로 이어져, 관람객이 마리오네트와 손인형을 직접 만들어보며 인형 제작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야외광장에서는 인형과 배우,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퍼레이드와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도 펼쳐져 축제 현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올해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가 추진하는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투명 페트병 회수기
봉동읍에 설치…총 6곳 운영

완주군이 투명 페트병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이끌고자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무인회수기를 새로 설치하고 오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설치로 완주군 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기존 삼례읍 완주군보건소, 봉동읍 근로자종합복지관, 완주 중앙도서관, 이서면 봉취팔취도서관, 이서문화체육센터 등 5곳을 더해 총 6곳으로 늘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기기에 페트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해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모은 포인트는 이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자리 잡아가면서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서울·광주서
장류축제 막바지 홍보 총력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이 순창 장류축제 개막을 앞두고 서울과 광주에서 막바지 현장 홍보를 펼치며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재단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주간 ‘아시아의 식탁’에 참여해 순창 장류문화와 장류축제,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 등 순창의 주요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홍보물 배포를 넘어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SNS연계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순창의 전통 장문화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며 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정계광장에서 열린 ‘2026 호남관광문화주간’에도 참여해 수도권 시민들과 국내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순창 관광 홍보를 이어갔다. 고추장·간장 만들기 키트를 활용한 체험 이벤트와 함께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발효테마파크·순창 장류축제 등 순창의 장류·발효문화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소개했다.

이번 홍보는 장류축제 개막 직전 수도권과 호남권의 주요 행사장을 직접 찾아 잠재 관광객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홍보로 진행됐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윤숙 대표는 “현장에서의 관심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26 순창 장류축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막 전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SGI서울보종 광주호남본부
완주군 선덕보육원 후원·봉사

완주군이 12일 SGI서울보종 광주호남본부(본부장 이준호)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후원금 500만 원을 지역 아동양육시설인 선덕보육원(원장 성재환)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선덕보육원 아동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서 발달 지원, 안정적인 자립 준비 등에 쓰인다.

이날 SGI서울보종 광주호남본부와 전주·군산지점 임직원들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온정을 전하고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쳐며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SGI서울보종 광주호남본부는 지난 2025년 5월에도 완주군 운주면 장애인거주시설 ‘베테스다의 집’에 환경 개선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4년 넘게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후원하며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준호 SGI서울보종 광주호남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향한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랜 시간 이어진 정성은 선덕보육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노인대학서 복지 정책 특강

주요 정책·노인일자리 등 안내
정춘드림위성·통합돌봄사업 설명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8일 노인대학에서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순창’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노인대학 교육과정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순창군의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복지 정책을 어르신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먼저 1982년 개교해 올해 제43기를 맞은 순창군 노인대학의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그동안의 활동 등을 소개했다. 올해 노인대학은 65세 이상 순창군 거주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강의 28회와 현장학습 2회 등 총 30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어 순창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9.3%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노인 이·미용비 지원, 보행보조기·전동보조기기·보청기 지원, 목욕탕 이용 지원, 마을 승강장 이용 환경 개선 등 어르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대화용기 세척·수거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정춘드림위성’ 사업과 의료·요양·돌봄 등을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 등도 함께 소개했다.

이와 함께 남원승화원 공동사용, 공설추모공원 조성, 화장장저금 및 장제비 지원 등 어르신과 가족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장사 관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도 안내했다.



<사진=순창군>

특강을 맡은 최영일 군수는 “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라며 “오늘 특강을 통해 어르신들이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노인대학은 현재까지 총 4,0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도 다양한 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공장·창고 1,229동 화재 안전 전수조사

완주소방서와 합동 조사반 편성
건축·소방 50개 항목 집중 점검

완주군이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상태를 단계별로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타 지역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공장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맞춰 관련 분야 고급 기술자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소방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다.

조사 대상은 산업재해 이력 등 위험 점수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과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이다.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례대로 점검을 진행한다. 1단계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초고위험 사업장 228동, 2단계는 초고위험 사업장 470동, 3단계는 그 외 공장·창고 531동이다.

합동 조사반은 설계 도면과 인허가 자료, 항공사진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직접 찾는다. 현장에서 내화구조, 방화구획, 마감재료, 피난시설, 무단 증축 등 건축 분야 28개 항목과 화재 예방 조치, 소화설비 등 소방 분야 22개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공장·창고의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 기념 한마당

24일 제22회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홍보·체험부스 31개·전시 등 운영

남원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시민의 광장에서 제22회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한마당은 ‘배움이 일상이 되는 남원’을 주제로, 지난 20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남원시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문은 운동과학자 홍정기 교수의 ‘100세 건강, 근육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제176회 Play남원 아카데미’가 연다.

기념식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최우수작 시낭송 △평생학습동아리 공연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그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어 읍·면 평생학습센터와 자치사

랑방, 평생학습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성과 공연발표회 △31개 평생교육 홍보·체험부스 △성인문해 사회작품 20점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는 △스텝프 투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이번 한마당이 시민들이 배움의 성과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경기 평택 소나무파크골프클럽 부안군에 500만원 기탁

부안군은 경기도 평택시 소나무파크골프클럽(회장 김의겸) 회원들이 지난 11일 출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을 찾아 파크골프를 즐기며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 가운데 이번 방문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다지는 동시에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기탁을 이끈 김의겸 회장은 평소 지역 사회와 민간단체를 이끄는 중추적인 리더로서 다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정원투어 및 ㈜에이지건축사사무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앞서 평택시민단체장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함께, 더 가치 있는 평택으로'라는 공식 슬로건 아래 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공음면 새마을부녀회 고추장 행복나눔 행사 개최

고창군 공음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7일 공음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 정성가득 고추장 행복나눔' 행사를 열었다.

공음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직접 재배한 고춧가루로 담근 고추장은 관내 경로당 51개소에 빠짐없이 전달되어 어르신들의 따뜻한 먹거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부녀회는 이날 고추장 나눔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역과 다시마 판매 행사를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부녀회는 수익금 전액을 오는 11월 진행될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와 '연중 밀반찬 봉사 활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봉사 현장에서는 부녀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고창의 미래를 여는 농어촌기본소득' 응원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정기 전 도의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 발전에 보탬 되고자

부안군은 김정기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 고향사랑기부금 120만원을 기탁하며 부안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도의원으로 활동했던 김정기 전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의 발전과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기탁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기 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부를 통해 부안을 응원하는 마음

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기부가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부안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김정기 전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비 지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 야생별 보호 등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은 김정기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 고향사랑기부금 120만원을 기탁하며 부안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봉동로타리(주)성실, 완주군에 아동 의류 4,700벌 기탁

6,300만원 상당 의류 전달 현재까지 2억원 상당 지원

완주군 봉동로타리클럽(회장 이성운)과 ㈜성실(대표 정태두·박연숙)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완주군에 6,300만 원 상당의 대규도 의류를 기탁했다.

지난 7일 완주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봉동로타리클럽, ㈜성실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 물품은 아

동 의류 37상자, 총 4,700벌로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회원 47명으로 활동하는 봉동로타리클럽은 관내 아동·청소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라면 60상자와 추석맞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온정을 이어왔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 귀농귀촌協, 해변 환경정화 활동

사단법인 부안군귀농귀촌협(회장 이성기)은 12일 오전 변산면 두포 해변 일원에서 '함께 가꾸는 깨끗한 부안, 귀농귀촌동아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8개 귀농귀촌동아리 회원 38명이 참여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사전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1조는 두포해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해변 정화 활동을 펼쳤고, 2조는 인근 연포마을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벽화 꾸미기 작업에 힘을 보탰다.

버려지는 병뚜껑을 마을 경관을 밝히는 작품 재료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단순한 청소를 넘어 자원순환의 가치를 함께 나눈 활동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밀알회,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봉사

사단법인 고창군 밀알회가 지난 10일 고수면 내 주거 환경이 취약한 독거어르신 가구를 찾아 주거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집 안팎 대청소와 생활용품 정돈, 방역 소독 등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사단법인 고창군 밀알회는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이창구 고창군 밀알회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숙 고수면장은 "고수면에서도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주)미래하이텍, 진안군에 장학금 5천만원 전달

(주)미래하이텍은 12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고향이 용담면인 최형진 대표는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 6년 연속으로 총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 장비 생산업체인 (주)미래하이텍을 경영하고 있는 최형진 대표는 "진안사랑장학재단과 인연을 맺고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최형진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장학금은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최형진 (주)미래하이텍 대표는 지역인재 양성과 고향 발전을 위해 진안사랑장학재단 후원뿐 아니라 용담면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진안군에 기부하는 등 가치 있는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돕기나서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좋은 이웃들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관내 10개 가정 이웃들에게 생필품, 난방유, 방충망 설치 등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폈다.

사회복지사 3인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장수읍 1가정, 산서면 1가정, 변암면 2가정, 장계면 1가정, 천천면 2가정, 계남면 1가정, 계북면 2가정 등 10가정에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난방유, 방충망 설치, 장판 교체와 화장실 수리 등을 지원했다.

또한 1시간 대화 나누기, 집안 청소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 당사자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고강영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은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가전제품

화재예방

자기관리

을 위한 방법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연기나, 타는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하지 말고 해당업체에 문의하세요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뺀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끝까지
꽂아 주세요

취임 100일 조지훈 전주시장 인터뷰

“단단한 기본의 힘으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존중·재정 혁신·행정 쇄신으로 민선 9기 시정 기틀 마련

1.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는?

‘전주도 바뀌어야 산다’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하고 엄중한 뜻을 안고, 지난 100일 동안 현장을 쉼 없이 누비며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부터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행정의 중심을 시민에게 돌려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등 난관도 적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와 변화에 앞장서 준 2천여 공직자들을 보며 전주의 지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시민과 함께라면 위기를 넘어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지난 100일이 변화의 방향과 원칙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AI와 문화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촘촘한 돌봄으로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삶의 변화를 느끼고 전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2.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시민존중도시’를 향한 변화와 향후 계획은?

시민존중은 “잘 듣겠습니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하고, 시민의 말씀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 것이 민선 9기 행정의 기본 태도입니다.

먼저 시민주권을 상징하는 시민의 공간인 시청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시장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간부회의와 출연기관장회의도 생중계해 정책의 결정 과정을 가감 없이 공유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기식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9월 말 기준 204건 중 175건에 답변하며 소통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운영 방식도 개선해, 같은 기간 ‘빨리처리(8272)’로 접수된 불편사항 61건 중 50건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청 신설 등을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주권의 원칙을 시정 전반에 세우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스며들고,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말하면 행정이 움직인다’는 신뢰를 쌓겠습니다.

3.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 절차 개선을 시민이 체감할 변화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기초를 바로 세우는 중심에는 전주시 공무원이 있습니다. 취임식 대신 공직자들과 정책 브리핑을 가진 것도 민선 9기 시정의 방향을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선언이자 첫걸음이었습니

다. 이를 위해 현업 부서의 계약 권한을 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정책의 신속성과 부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효과가 빠르게 지역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안요구 1회’를 원칙으로 하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제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잦은 보안 절차로 인한 민원 불편과 처리 지연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도 통합심의와 행정 지원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한은 위임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굴해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지난 100일간의 재정 점검에서 확인한 주요 과제와 이를 해결할 재정혁신 전략은?

전주시 재정 정상화는 시정의 선결과제입니다. 취임 첫날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1호 안건으로 결재한 것도, 우리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바로잡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지출과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00일간 재정 특위를 중심으로 재정 운용 원칙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확충, 지방교부세 확대 건의 등으로 세입 구조를 탄탄히 다지는 한편, 민간보조금의 단계적 감축과 필수경비 절감 등 과감한 세출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 사업도 재원 구조와 운영 부담, 조정 가능성, 사업 진척도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시민께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의 삶까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아낄 곳은 확실히 아끼고, 세입과 세출 혁신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시민께 꼭 필요한 사업은 멈춤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 AI를 전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셨습니

다. ‘AI 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은? 전주에 찾아온 경제적 기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주산업 혁신의 바탕으로 삼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미래 먹거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임 직후 AI·ICT 현장 방문과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첨단복합산단 내 동미전자공업의 1,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HMS, ㈜아이에이클라우드와 모뎀형 AI데이터센터(MDC) 실증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역동적인 경제도시 전주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전주는 로봇과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피지컬AI의 실증·검증에 집중하겠습니다.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피지컬AI-벨리’ 조성을 본격 추진해, 30만 평 이상의 거점에 연구·기업·교육·주거 기능을 집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돕고, AI 기반 전략 산업 펀드를 조성해 핵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전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산업 대전환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누리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AI 특별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6. ‘시민돌봄 책임도시’의 핵심 정책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변화는?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책임지겠습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전주시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돌봄 전주를 만드는 것이 시민돌봄 책임도시의 약속입니다.

먼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과 교통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전주 아이꿈 수당’을 도입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으로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100일 버스로 단계적으로 도입해 우리 아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전주형 청년주택 확대와 첫 출발 청년 주거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안심 돌봄 365’로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안심 동행 서비스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 등 포용적 복지를 촘촘히 행기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와 장애인회관 건립, 파크골

프장 확충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스포츠·복지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과제는 완수하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7.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

다. 전주의 문화는 우리의 궁지이자 산업의 자산입니다.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서사에 첨단 기술을 더해 콘텐츠로 키우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역사를 하나의 서사로 엮었습니다. 후백제 수도 전주의 고도 지정과 조선·근대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대적 가치를 확산해 자금심 넘치는 ‘시민혁명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영화·영상 산업 등 K-콘텐츠 경쟁력도 키우겠습니다. ‘전주 메이드’ 장편영화 제작 지원과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영화·영상 콘텐츠 창작 인프라를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전주시 전역을 상설 무대로 삼는 지붕 없는 거리에 술 플랫폼과 어린이 중심 복합 문화 거점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의 활력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충경로 RE: CORE’ 프로젝트로 공실 정비와 창업, 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도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성장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내년 세계청년대회(WYD) 전주교구 대회와 세계문화정상회의(UCLG)를 성공적으로 치러 전주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백반·가막·막걸리의 미식 산업화와 K-푸류를 결합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육성해 세계인이 오래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세계 속의 ‘아시아 5대 문화산업도시 전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8.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은?

소상공인이 든든히 버텨줘야 골목상권이 살고, 골목상권이 살아야 전주 경제가 살아납니다.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주 희망드림 특별보증’을 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으로 이차 부담을 덜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겠습니다.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별 브랜딩과 디지털 마케팅도 지원해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것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공공급식을 강화해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겠습니다.

신종년 재취업 지원과 프리랜서·플랫폼·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로 든든한 노동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민생경제의 회복은 시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는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9. 취임 1주년까지 속도를 낼 핵심 과제와 임기 말 시민에게 평가받고 싶은 성과는?

취임 1주년까지 가장 속도를 낼 과제는 재정과 공직사회의 혁신입니다. 재정혁신 방안을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재정 운용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판단 근거와 과정은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공직사회도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시민의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의 힘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시민 생활에 직결된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결과가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쌓겠습니다.다.지난 100일이 기초를 바로 세우고 청사진을 구체화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임기는 그 밑그림을 확실한 결실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임기 말에는 시민께 “내 삶이 달라졌고, 전주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시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회복하고, 전주번영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말보다 확실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지난 100일은 시민

을 귀하게, 전주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를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질책 모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3년 9개월 동안 그 약속을 시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겠습니다.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주만의 역사와 시민의 지력, 정부와 함께 뛰는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시민 존중의 경영과 세심한 소통, 시민주권의 원칙과 강력한 추진으로 전주의 체질과 바탕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초심을 잃지 않고 전주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더욱 잘 듣고,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늘 든든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오직 전주, 오직 시민을 바라보며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대담=장정철 편집국장